

사회

오늘 조리원 등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

광주·전남 초·중·고 급식 대혼란

학교측, 빵·우유 제공... "도시락 싸와라" 공문 학부모단체 "아이들 밥 굶으란 말이나" 반발

학교 급식종사원 등이 주축인 광주·전남지역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9일 하루 동안 전면 파업에 돌입, 유치원·초·중·고 학교 급식에 차질과 혼란이 예상된다. 학부모 단체 등은 "아이들 식사를 볼모로 파업해서는 안된다"며 파업철폐를 촉구했다.

무하는 급식업무 종사자는 조리원 1734명, 조리사 235명, 영양사 168명이다. 전남지역 학교에서도 비정규직 노조 가입대상 약 6800명 중 3400명이 노조원이다.

이들 대부분이 학교급식 종사원(영양사·조리사·조리원)이어서 파업 참가자가 많을 것으로 보이는 일부 학교에서는 급식을 하지 않기로 했다. 월곡초, 삼정초, 광주남초, 마재초 등 초등학교와 각화·두암·성덕·신광중학교 등은 단축수업한다.

저소득층 아이들의 배고픔과 박탈감은 어떻게 보살볼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은 파업 참여자가 적어 조리 가능한 학교에 대해서는 정상 급식을 하도록 지시하고 급식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은 학교에는 개인 도시락을 지원하도록 각 가정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도록 했다.

광주인권사무소장 해임

인권교재 선정 과정 500만원 수수

국가인권위원회는 8일 "인권위 산하 광주인권사무소 이경장(49) 소장이 급품수수 문제로 해임됐다"고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지난 2005년부터 광주인권사무소장을 맡아온 이 전 소장에 대해 9월 고등징계위원회를 거쳐 지난달 해임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을 받은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인권위는 이와 별개로 지난 8월부터 이 전 소장에 대한 내부 감사를 했고 이 전 소장은 문제가 불거진 이후 사임 의사를 밝혔으나 공무원법상 징계 절차가 시작되면 사직을 할 수 없어 해임 처리됐다.

女제자 꺼안고 입맞춘 교사 입건

순천경찰은 8일 여제자의 볼에 입을 맞춘 순천지역 모 고등학교 교사 강모(59)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고 볼에 입을 맞추는 등 제자 2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양 측의 고소를 접수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생의 추행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나원침 (8686) 김중두



순천시장 직위 유지 회계책임자 벌금 250만원

회계책임자가 벌금 500만원을 구형받아 직위 상실위기에 처했던 조충훈 순천시장이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이 절반으로 깎이면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만취 여성 부축하는척 '혹심' 20대

○술취한 20대 여성을 부축해 주는 척하면서 집에 따라 들어간 뒤 '혹심'을 드러내 여성의 몸 이곳저곳을 만진 20대 남성이 경찰서로 향했다.

영광원전 5·6호기 가동중단 극단적 결정 왜?

"말못할 사연 있나" 의문 확산

지경부 "가치판단 문제"

영광원전 5·6호기 가동 중단사태로 대규모 반핵 시위가 예정된 가운데 이번엔 올해 연말까지 가동을 중단기로 한 지식경제부의 방침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고 있는 미국의 경우도 부품 부적합 시 가동을 중단하는 사례가 없었다는 점도 이러한 의구심을 부추기고 있다. 미국 NRC(원자력규제위원회)는 품질검증과 관련해 부적합 사항이 발견되면 엄격한 절차에 따라 교체, 계속사용, 폐기, 비안전등급 사용, 전수 검사 후 사용 등의 조치를 취할뿐이다.

누구도 알 수 없다"고 일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기회로 원전 안전성에 대한 총체적 검증과 원자력 발전소의 전면 중단을 촉구하고 있는 반핵·시민단체는 여전히 지식경제부의 가동 중단 결정이 명분을 위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청소년 출연·음주예방 캠페인

수능이 끝난 8일 오후 광주시 동구 충정로 우체국 앞 광장에서 경찰과 학부모, 시민단체 회원들이 청소년 출연과 음주 예방을 위한 거리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전남대 총장 후보자 1순위 박창수 교수 불법 선거운동 혐의 벌금 500만원 선고

광주지법, 이병택 교수 200만원

광주지법 형사 6단독 허양운 판사는 8일 오전 전남대학교 제19대 총장 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교육공무원법 위반)로 약식기

소된 전남대 총장 임용후보자 1순위 박창수(58·의대)교수와 2순위 이병택(55·공대)교수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했다.

앞두고 9차례에 걸쳐 22명의 교수에게 모두 10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연구실 방문 또는 모임을 통해 130차례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이 교수는 비슷한 시기 교수들의 연구실을 찾다니거나 식당에 모이게 한 뒤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78회에 걸쳐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눈이 피로하면 온몸이 피로하다

안구건조, 눈피로, 만성피로 - 3단계 치료로 해결

안구건조·눈피로 눈이 마르고 건조하며 침침하고 쏟아질 것처럼 피로하다

최근 직장인 및 수험생, TV를 자주 보는 어린이들 호소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조금만 책을 들여다보거나, 컴퓨터 모니터를 보다보면 눈이 쏟아질 것처럼 피로하고 머리까지 무거워지는 증상을 보인다.

보이는 현상)를 일으키고, 심할 때는 구토까지도 일으키는 질환이다. 물론 난시, 원시, 사시의 소유자는 더욱 빨리 피로증세를 보인다.

이 때 간의 화기(火氣)가 인체의 상부인 머리와 눈에 영향을 미쳐 눈이 마르고 건조해지며, 침침해지고 피로해지며 심하면 '눈에서 불을 쬐는 것 같은'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인다라한의원의 대표원장 한의사 김명삼원장

만성피로 쉬어도 쉬어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

전신피로는 아무리 검사해 봐도 특별한 질환으로 발견되지 않지만 일상에서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 조금만 육체적인 일을 해도 피곤이 가중되며, 휴일에 잠을 자도 피곤이 개선되지 않고 깊은 잠을 잘 수도 없다.

쉬기 등 나름대로의 피로회복 대책으로 피로를 풀려고 할 뿐 피로를 병원으로 가서 진단을 받고 치료해야 할 질환이라 생각하는 경우는 드물다.

증세는 한방치료가 제재이다. 단지 증상을 잡는 것이 아니라 몸(체)을 보(補)해주는 한약 자체의 특성으로 피로의 원인은 물론 몸의 건강 자체를 살려주기 때문이다.

www.indara.co.kr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 60-24 광주은행 6층 광주점 062-368-5075

Advertisement for '아이엘리시아' (Aielisya) restaurant. It features a list of menu items like '150여가지의 즉석메뉴' and '즉석 프리미엄뷔페!!'. It also includes a price list for different dining option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reservations.